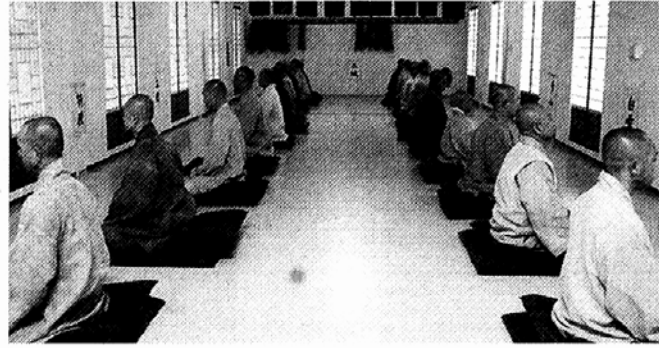


# '이심전심' 선종사 뿌리 한눈에

'능가사자기' 박건주 옮김



중국에서 시작된 선종은 우리나라에도 이어져 한국불교의 큰 흐름을 형성했다. 사진은 법주사 총지선원에서 정진하고 있는 수좌들 모습.

"선종의 계보와 초기 선(禪)의 요체는 무엇인가." 신간 <능가사자기> (박건주 역주, 운주사는 구나 발다라, 보리달마, 혜가, 승찬 선사 등 초기 선종(능가종) 선사들의 어록과 전기)를 담고 있는 책이다.

어쩌면 초기선종의 역사나 계보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변천의 무늬는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선 수행의 뿌리를 알게 해 준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1천여 년 전 중국 돈황석굴에서 초기 선가의 실체를 알 수 있게 하는 책들이 발견된다. <전법보기>, <능가사자기>, <역대법보기>, <유심론>, <수심요론>, <증심론>, <대승무생방편론> 등. 이 가운데 <능가사자기(楞伽師資記)>는 선종이 본래 <능가경>의 핵심을 바탕으로 수행하는 '능가종'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귀중한 책이다. 지은이는 신수의 문헌에서 선법을 배운 정각(683-750) 선사.

<능가경>의 선지(禪旨)에 의지하여 심인상전(心印相傳)한 초기 선종의 사자(師資) 스승과 제자 전승의 계보를 밝히고, 그 본들의 전기와 함께 어록을 수록하고 있다. 이미 초기 선종이 <능가경>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정도는 알려져 있었지만 <능가사자기>가 발견됨으로

서 선법의 요체와 전법의 계통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다.

이 책은 함께 발견된 다른 선종 사서에 비해 초기 선사들이 실한 선법의 요지를 가장 풍부하게 담고 있는데, 능가선법을 비롯해 후대에 정법을 제대로 전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있다.

돈황에서 발견된 초기 선종의 자료

를 가운데 <전법보기>는 <능가사자기>보다 저술 연대가 빠르다. 하지만 그 내용은 초기 선사들의 행적이나 일화를 간략히 적은 것이고 법문이나 어록 부분은 없다. 따라서 초조에서 7조까지 초기 선사들의 선법을 가장 상세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능가사자기>인 셈이다. 선의 역사상 잘 알려지지 않았던 구나발다라를 초조로 하여 그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점도 이 책의 특

징이다. 초기 선종의 선법이 후대에 상당 부분 퇴색하고 변질되었으나 이러한 자료를 통해 본래의 선법(능가선)을 되찾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자료의 소개와 해설이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상당히 늦었다. 대중서로서는 1990년 출간된 <초기선종사> (전2권, 양기복 역주, 김영사) 이외는 거의 없을 정도다. 중국고대사를 연구하고 있는 박건주(전남대 강사) 씨가 내놓

은 이 역주본은, 사료적 가치뿐만 아니라 번역에 있어서도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 놓아 선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없는 사람들도 고통스럽지 않은 책임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함께 이 책에는 <출삼장기집>과 <속고승전>에 실린 초기 선사들의 전기도 우리말로 옮겨 덧붙이고 있다. 값 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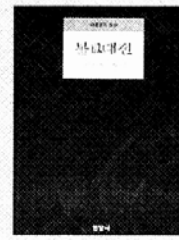
김종근 기자 gamja@buddhapia.com

## 불교대전

'말말'이 많은 시대. 여기저기 주의를 주장들이 넘쳐나고 목소리 또한 높다. 하지만 진정한 새길 말들은 그리 많지 않다. 이런 시대에 부처님의 설한 말씀을 깊이 되새겨 봄은 어떨까. 하지만 막상 경전을 읽으려하면 어떤 경전부터 읽어야 할지 막연하다.

<불교대전>(현암사는 경전 선법의 방향조차 잡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요긴한 책이다. 대장경의 세계를 주제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이 책은, 만해 스님이 대장경을 토대로 경전의 진수만을 추려서 집필한 책을 불교학자 이원섭 씨가 1980년 역주했다.

방대한 경전을 교리, 신앙, 포교 등 크게 9종으로 나누어 정리한 이 책은, 불교의 기본적 교리와 수도 방법 그리고 처신의



## 방대한 경전숲서 정수만 가려뽑은 축소판 대장경

문제를 체계 있게 분류하여 위로는 깨달음의 내용부터 아래로는 국가·가정·개인 문제의 해법까지 담아내고 있는데, 그 내용은 경(經)·율(律)·론(論) 삼장을 골고루 엮은 1741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한역대장경과 남전대장경 등 모두 444부에 담긴 것들이다.

이원섭 씨가 머리말에서 '대승 소승에 구애받지 않는 불교 교리의 재정비를 위해 만해 스님이 출간한 이 책은, 대장경의 축소판이요, 진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평가한 것처럼 이 책은 '불교경전의 정수'라 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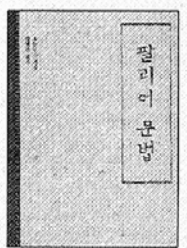
이 책이 이렇게 높게 평가 받는 데는 여러 경전의 정수만을 가려 뽑은 점 말고도 그 까닭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원섭 씨가 현대어로 풀어놓은 문장과 꼼꼼한 각주와 풀이, 불교용어 사전 구성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인 5천여 항목의 찾아보기 등.

부처님께서는 45년간 장광설을 하시고도 "나는 일생동안 한 마디도 설한 바 없다"고 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 또한 경전의 경우에만 집착하지 말고 그 말씀 속에 녹아있는 부처님의 사상을 읽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만해 스님이 이 책을 엮은 까닭이라리라. 값 1만9천5백원

김종근 기자

## 근본불교 담은 고전어 길잡이

'팔리어 문법' 김형준 옮김



근본불교 본디의 교의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스크리트와 팔리어 두 가지 고전어를 습득해야 한다. 불교 고대 문헌(경전) 대부분이 이 두 언어로 전승되었기 때문이다.

신간 <팔리어 문법>(연기사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팔리어 교습서이다. 팔리어 및 남방 상좌부 연구의 석학 미즈노 고오겐(전 일본 구테대학 총장) 교수가 지은 책을 위덕대학교에서 원시불교 및 팔리어를 강의하고 있는 김형준(불교학과) 교수가 우리말로 옮겼다.

팔리어는 같은 계열의 언어인 산스크리트어에 비해 배우기 쉽다는 인상을 준다. 하지만 의외로 통달을 하기에는 아주 어려운 언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리어가 근본불교연구에 있어 중요시되고 있는 것은 뿌라끄리뜨(중기 인도 아리아어의 총칭) 가운데서도 가장 긴 역사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부파불교 및 초기 대승불교가 현재까지 완전하게 전해지고 있는 것은 팔리어본전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현재 미얀마·티베트·라오스 등 남방불교권에서 팔리어를 성전어(聖典語)로 삼고 있는 것만 봐도 그 가치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지금까지 팔리어 문법서들은 중요성에 걸맞게 여러 권이 나왔다. 하지만 이 책의 특징은 베다어에서 뿌라끄리뜨, 산스크리트에 이르는 주변 언어와의 광범위한 비교와 함께 그 세세한 해설과 예문을 실고 있다는 점이다. 값 9천원.

김종근 기자

## 군불자 사랑받는 병영법문 백미

'씨앗법문' 이정우 법사



신간 <씨앗법문>(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잊혀져 가는 군생활의 소중한 추억의 불씨를 되살려 준다. 지은이는 이정우(36·벽제 일승사) 군법사. 지난 세대에도 그러했겠지만 요즘도 군법사가 설하는 법문들은 용기와 희망을 북돋워 주는 것들이다.

수록된 법문은 모두 36편. 지은이가 입관 후 첫 법문을 한 철원 청원사를 비롯해 모두 6곳의 군법당에서 장·사병들에게 한 법문 가운데 불성을 일깨워 씨앗 법문만을 가려 뽑은 '병영 법문'의 정수다.

일주일에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주제로 5-6곳에서 군불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이정우 법사. 그가 불교 경전과 동서양 고전을 넘나들며 펼치는 여러 예화와 법문은 재미와 흥미를 넘어 내면 성찰에까지 이르게 한다. 값 8천5백원.

김종근 기자

## 드나들의 미학

주남철 '한국의 문과 창조'



사찰의 문은 안과 밖을 구분하는 다른 건축물과는 달리 부처님의 세계인 불국토에 들어섬을 의미한다.

문과 창조를 통해 드나들의 철학과 미학을 살핀 <한국의 문과 창조>(대원사가 나왔다. 지은이는 30여년간 한국건축의 문과 창조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주남철(고려대 건축공학과) 교수. 그는 먼저 우리나라 문과 창조의 상징성과 뜻을 설명하고, 주택·도성·궁궐에서의 문화창조들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살핀 다음, 사찰에 세워진 문과 전각의 의미 그리고 이들에 설치되어 있는 창조에 대해 고찰한다.

지은이는 사찰 전각에 설치되는 창조들은 한국 창조의 모든 것을 수용하고 있다며 사찰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살짜임새인 정자살창, 빗살창, 빗꽃살창, 솟을빗꽃살창 등에 주목한다. 값 1만5천원. 김종근 기자

## 시심으로 본 산사 풍경

이상범 시집 '풀빛화두'



이상범(66) 시인은 30여 년 전부터 사찰을 찾기 시작했다. 속세를 떠난 그곳에서 시인은 사찰의 웅대한 부분이 아닌 아주 작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시심에 잡힌다.

<풀빛화두>(책만드는집)는 절을 찾는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쳐버릴, 어쩌면 하찮게 생각하는 것들을 시제로 하여 쓴 시집이다.

"어둠을 찾아 발기며 / 새소리가 산을 오른다 / 물소리 차오르듯 / 산새소리 찰찰 넘쳐 / 그 소리 해돋이 한 자락 / 대불전에 공

양한다." ('새소리' 전문) 석굴암의 일출을 보기 위해 토함산에 오른 시인은 이 세상에 태어나 배운 모든 지식들을 벗어 버리고 때론 지는 본래의 감각을 작중 시킨다. 그리하여 시인은 계곡 끝자락에서 들리는 새소리, 자연의 향기와 맛 그리고 동해의 일출을 시에 담는다.

하지만 외형에 눈을 빼앗긴 사람들은 이런 감상에 잠길 수 없다. 이상범 시인의 시들은 심안(心眼)으로 읽히는 시들이다. 값 5천5백원. 김종근 기자

##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역사인물 집기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나의 행자시절	박원자	다함미디어
2	깨달음의 길	정우진·신동욱	부디스토폴리스
3	티벳 밀교 요가	라미 카지	정신세계사
4	선방일기	지 허	여시야문
5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립 원
6	선의 나침반	현 각	열 립 원
7	선재스님의 사찰음식	선 재	디자인하우스
8	명상으로 얻은 깨달음	달라이라	가 랍
9	지장경 강의	무 비	불 광
10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성우 지현	민 족 사

도서 안내: (02)737-0695

# 죽기 전에 단 한 번만 읽어도 영원한 해탈에 이른다는 천년 신비의 경전!

삶과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환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영원한 대자유에 이르는 길은 무엇인가? 삶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을 불러일으키는 책!

## 티벳 사자의 서

파드마삼바바 저음 | 에반스 펠스 편집 | 칼 융 해설 | 휴시파 옮김 | 양장본 | 525면 | 15,000원

죽음 이후, 영혼의 행로 49일을 밝힌다!

경전 전문에 풍부한 주해를 담고, 칼 융의 심리학적 해설을 비롯한 상세한 해제를 수록하여 원전의 진의를 완벽히 드러낸 국내 최초의 완역본. 류시화의 우리말 번역으로 읽는 정신세계사의 <티벳 사자의 서>!



티벳 밀교의 정수를 담은 에반스 펠스의 티벳 라이브리러리! - 칼 융이 경탄한 인류 최고의 정신과학! 20세기 초, 옥스퍼드 대학 인류학 박사 에반스 펠스는 인도로 가서 라미 카지 다와삼들의 제자가 되었고, 티벳 불교의 정수를 4부작으로 복원해냈다. <티벳 사자의 서>, <티벳 해탈의 서>, <티벳 밀교 요가> 그리고 출간 예정인 <티벳의 위대한 오기 밀리레파>가 바로 그것이다.

· 나는 이 책에서 수많은 근본적인 통찰력을 얻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 칼 융  
· 티벳의 수행법들은 모든 것로부터 자유로워져 참다운 자아를 발견하게 한다. - 한겨레  
· 정신세계를 다룬 티벳 최고의 경전. 칼 융이 직접 해설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 조선일보

## 티벳 밀교 요가

라미 카지 다와삼들 번역 | 에반스 펠스 편집 | 휴시파 옮김 | 양장본 | 520면 | 18,000원

티벳 성자들이 깨달음에 이르게 한 최상승 요가 수행법!

틸로파와 나로파·마르파·밀라레파를 포함한 인도와 티벳의 유명한 많은 성자들이 깨달음을 얻는 데 사용했던 요가 수행의 비결! 수행에 뜻을 둔 사람들이면 반드시 참고해야 할 책!

## 티벳 해탈의 서

파드마삼바바 저음 | 에반스 펠스 편집 | 칼 융 해설 | 휴시파 옮김 | 양장본 | 432면 | 15,000원

이름 이대로 해탈에 이르게 한다!

왜 이 책은 1,000년 동안 동굴 속에 숨겨져야 했는가? 8세기경, 티벳에 불교를 전하고 수많은 비밀 경전을 남긴 붓다의 화신 파드마삼바바. 그가 예언한 대로 천년 만에 환생한 그의 제자들이 찾아낸 바로 그 책!

● 격월간 <정신세계> 재창간 기념 정기구독자 특별 이벤트

1년 구독료로 2년간 정기구독자가 됩니다!

8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뉴이치 종합지 격월간 <정신세계>가 1년 정기구독료 7만2천원으로 2년을 구독하시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7월 31일까지). 정기구독을 하시면 자동으로 정신세계권 회원이 되셔서 라미·불광 구입 때 할인 받으시고, 정신세계사의 모든 책도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기구독 신청 - 전화: (02)733-3135(401·407) / 팩스: (02)747-7034 / 인터넷 신청: www.mindvision.org  
송금구좌: 은행·우체국·농협 지로번호: 3006577, 휴먼빌: 009-21-1159-604(국민은행, 예금주 송순원)